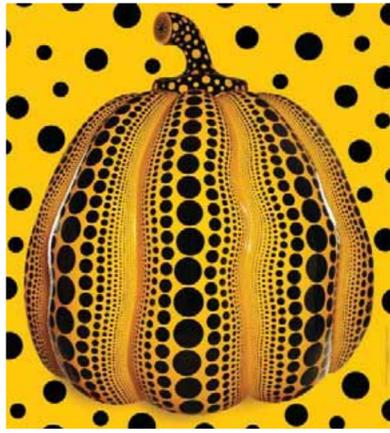


무라카미 다카시 작 'Such cute flowres'



쿠사마 아요이 작 '호박'



김경민 작 'welcome'



강요배 작 '해바라기'

백화점 갤러리서 미술품 쇼핑하세요

광주 롯데갤러리 8월 3일까지 'Shopping my art collection 백화점'전

국내외 작가 20여명 60여점 선봬

5만원~2700만원 작품마다 가격표

미술품 구입은 좋아하는 작품을 언제든지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봄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작품을 거실에 걸어놓는다면 집안 분위기가 한결 산뜻해진다. 또 작가와 작품에 따라서는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어 매력적인 투자 방법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광주 롯데갤러리가 8월3일까지 여는 'Shopping my art collection 백화점(百濶點)'전은 한자리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구입할 수 있는 기회다. 부산에 이어 열리는 전국 순회 전시로, 백화점 상품처럼 작품마다 가격표가 붙어 있어 쇼핑을 하듯 부담없이 둘러볼 수 있는게 특징이다.

회화, 조각, 사진, 판화 등 다양한 국내외 작가 20여명 작품 약 60여 점을 선보인다. 참여 작가 면면도 화려하다. 강요배, 강익중, 이동기, 최영립 등 미술시장 블루칩 작가들뿐 아니라 구성수, 구성연, 김경민, 남춘모, 문형태, 차규선 등 원로·중견 인기 작가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설치미술가 강익중 작가가 제작한 '달항아리'(2007,

120×120cm)작품은 2700만원으로 이번 전시에서 최고가다. 강요배 작가의 '해바라기'(2004, 53×41cm)는 1000만원이다.

이외에도 'Fountain(샘)'(이동기·회화), 'Baseball Family'(김경민·조각) 등 1000만원이 훌쩍 넘는 작품을 다수 만날 수 있다. 수백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작품이 부담스럽다면 청년작가 작품도 고려할만 하다. 서상의 작가가 유명인을 그린 'F.Bacon', 'Mondrian' 작품은 40만원이고 강지만 작가의 '숲속에서'는 50만원이다.

또 원본은 아니지만 외국 유명 작가 작품도 전시·판매된다. 잭슨 폴록, 앤디 워홀, 리히텐슈타인, 쿠사마 아요이, 요시토모 나라 등으로 오리지널 작품 대신 저렴한 판화(멀티플)작품을 선보인다. 무라카미 다카시의 회화 'Such cute flowres'(50×50cm)는 200만원, 쿠사마 아요이 조각 '호박'은 70만원에 구입할 수 있으며 앤디 워홀 'Campbell soup'는 20만원이다.

10만원대 이하 가격도 있다. 리히텐슈타인 포스터 'Girl with a beach ball'(17.5×12.5cm)은 5만원, 'Drowning Girl'(16×20cm)은 7만원이다. 문의 062-221-1807.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숨기고 드러내다'... 박수만 개인전

17일까지
남도향토
음식박물관



▶'노랑머리'

독특한 인체 조형미를 보여주고 있는 박수만 작가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17일까지 '숨기고 드러내다'를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박 작가는 일상을 소재로 사유와 통찰을 담아낸 드로잉 최근작 80여점을 선보인다. 박 작가가 그린 인물 드로잉 특징은 옷을 벗은 채 분홍색 피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사실적인 묘사보다 인물을 왜곡해 표현함으로써 다소 우수꽁스럽거나 엽기적으로 보인다. 주제 '숨기고 드러내다'는 숨기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드러내고자 하는 것

은 인간다운 모습을 의미한다. 박 작가가 맥주를 마시다 소재를 얻은 '노랑머리'는 나체 여인과 병뚜껑을 등장시켜 욕망을 표현했다. '삶의 공식', '2016 꿈틀거리는 세상' 등은 인간의 소중한 가치가 밥 한끼, 술 한잔 등 결국 멀리 있지 않음을 암시한다. 박씨는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신세계미술제 대상을 수상했다. 2009년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장작스튜디오 레지던시에 참여했고 지난 5월 북경서 드로잉 전시를 개최했다. 문의 062-575-8883. /김용희기자 kimyh@

호른 연주자 김홍박 광주 콘서트

내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광주에서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호른 독주회가 열린다.

김홍박 독주회 '프렌치 호른'이 14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7년만의 한국 공연이다.

김씨는 다른 파트에 비해 한국인 음악가들이 좀처럼 입성하기 어려운 유수 오케스트라 금관 주자로 활동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을 거쳐 현재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종신 수석,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객원 수석을 맡고 있다.

이번 연주회 레퍼토리는 사브리예의 '호른과 피아노를 위한 라르케토', 케를랭의 '호른 소나타, 작품 70', 생상스의 '호른과 피아노를 위한 로망스, 작품 67', 구노의 '호른과 피아노를 위한 여섯



©/Music Friends' Jun-Yong Lee.

개의 멜로디', 드레이의 '호른과 피아노를 위한 알파' 등이며 토마시의 '호른과 피아노를 위한 코르시카의 노래' 등 4곡은 국내 초연곡이다.

티켓 가격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062-360-84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상반기 미술품 경매시장 김환기 열풍

낙찰가 1~4위 휩쓸어...천경자·이우환 위작 시비에도 인기

2016년 상반기 미술시장은 김환기 열풍이 불었다. 또 천경자·이우환 화백은 위작 시비에 휩싸였음에도 인기는 여전했다. (사)한국미술시각정협회와 미술경제전문지 월간 '아트프라이스'가 11일 '2016 상반기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 결산'을 발표했다.

약 964억원이 거래된 올 상반기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낙찰가 기준 50순위 중 12순위가 김환기 작품이었다. 지난 6월 한국미술품 최고가 기록을 다시 쓴 '무제 27-VII-72 #228'(1972·54억원·사진)을 비롯해 '무제'(1970·48억9390만원), '무제 3-V-71 #203'(1971·45억5850만원), '15-XII-72 #305'(1972·22억211만8000원)이 나란히 1~4위를 차지했다.

낙찰 총액은 251억1800만원(43개 작품)이었다. 가장 큰 이슈는 천경자 화백과 이우환 화백의 위작시비이다. 보통은 작품가격에는 악재로 작용하지만 두명 모두 큰 영향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 화백은 '정원(園)'(1962)이 지난 3월 17억원에 낙찰되며 6위에 오르는 등 올 상반기 낙찰총액은 38억1780만원이었다. 이 화백도 'With Winds'(1990·10억9404만원)를 10위에 올리며 올 상반기 낙찰총액 약 66억원을 기록했다.

호당 평균가격 순위는 박수근 화백이 독보적이다. 박수근 작품은 올해 8개가 26억1107만원에 팔리며 호당 2억6765만 5000원에 달했다. 2위는 김환기로 호당 2891만원이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매일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시낭송 콘서트

시·음악·연주와 함께하는 금남로 연가

- ◆ 일시 | 2016년 7월 27일 오후 6시
- ◆ 장소 | 세계조각·장식박물관
- ◆ 주최 | 세계조각·장식박물관
- ◆ 주관 | 광주 서구문화원(기획:김정희 시인)

세계조각·장식 박물관 ☎(062)222-0072, 226-5800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연선 1층)

산업환경기기 & 기계부품 제조전문업체

최고를 지향하는 친환경기업

YHB ECO

창사 29주년

www.yhb.co.kr

YHB 이동식 에어컨

조리작업장/주방/산업현장 작업효율 증대!!
체감온도를 낮춰 최적의 작업환경 보장!!

PTB7000

PTB5000

PTB-W5000(수냉식)
업소 주방에 최적

▶ 쾌적하고 깨끗한 작업공간 연출
▶ 실내·외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
▶ 이동이 용이한 바퀴 형태
▶ 고온 및 습기에 강력

전국 50개 지점망 이용
24시간 내 A/S

필터 교체가 필요없는 집진기

YHB (주)YHB ECO / 주식회사 YHB / (주)YHB 토달서비스

본사 및 영업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 12차 501호 ☎ 02-2029-6400 / FAX 02-2029-6404
광주 공장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7번로 74(오선동) ☎ 062-952-6633 **인산공장**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1(용계동) ☎ 063-835-4771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 shh@yhb.co.kr / eco6400@hanmail.net